

▶ 아동

공격성과 주의산만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최 정 미*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강사)

박 윤 창 (초당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공격성과 주의산만의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모래놀이치료를 하였다. 내담아동은 만 5세 유치원생으로 가족은 부모와 만 3세 된 여동생이 있다. 내담자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친구나 동생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주로 혼자서 곤충류와 같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만 가지고 놀며 주의가 매우 산만하여 치료를 의뢰하였다.

내담자의 어머니는 혼전임신을 하였고, 내담자의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여서 친정의 결혼 반대로 인해 임신중절을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자녀양육에 있어 권위적이고 지시적이며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내담자의 심리검사로 HTP, KFD, 문장완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내담자는 내적인 고립감과 위축감을 나타냈으며 대인관계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위축되어 있고, 사회적 상황이나 감정교류 상황을 회피하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가족화에서는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동떨어진 느낌을 주었고 가족 내에서 갈등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치료목표는 억눌렸던 감정들을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들의 발산하고 정화시키며, 감정을 잘 조절하고 주의집중이 잘 되도록 하는데 두었다.

모래놀이치료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매주 1시간씩 총 24회기를 진행하였으며, 내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매주 1시간씩 총 4회기의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을 병행 실시하였다. 1-6회기는 투쟁의 단계로 내담자는 악어, 뱀, 백상어 등의 피겨를 주로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여 무의식을 표현하였다. 7-13회기는 전환의 단계로 물속에 육지를 만들어 육지를 점차 넓혀가는 자아의식을 표현하였다. 14-24회기는 적응의 단계로 백상어와 궁전, 무덤 등의 피겨를 사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였다. 모래놀이치료 결과,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화가날 때,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언어로 표현하게 되었고 안정되어 주의집중력이 향상되었다.